

의약품 수출판도 대변혁 “예고”

일본에서 중국·베트남으로 ... 1~5월 중국수출 2400만달러

의약품 수출판도가 크게 뒤바뀌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돼왔던 의약품 수출이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제약원료와 완제의약품 분야에서 최대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국산 의약품의 주요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품수출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94년 890만달러로 수출대상국 중 10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95년부터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 전년대비 3배이상인 314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일약 4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제약원료 수출현황(1996.1~5)

국가명	(단위 : 달러, %)		
	1995(1~5)	1996(1~5)	증감률
중 국	3,470,250	21,796,260	528.1
일 본	24,235,714	12,414,530	▽48.8
이태리	3,342,590	12,259,945	266.8
인도네시아	6,127,087	10,195,412	66.4
홍 콩	5,797,331	8,852,865	52.7
미 국	5,828,721	5,642,145	▽3.2
스페인	7,162,042	5,284,350	▽26.2
베트남	3,644,440	4,306,319	18.2
독 일	5,568,175	3,303,641	▽40.7
이 란	3,527,226	3,284,898	18.2
기 타	29,722,541	20,473,239	-
계	98,436,117	107,813,604	9.5

있다.

지역별로는 동북3성이 수출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향후 내륙으로 판매망을 넓혀갈 경우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도 두드러지고 있다. 베트남은 95년 26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 증가해 7위에서 5위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96년 들어서도 5월현재 완제의약품 부문에서 585만달러로 95년동기 대비 322% 증가했으며, 제약원료도 18% 늘어난 43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96년 들어서도 호조를 지속, 5월말 현재 95년동기의 6.5배인 2400만달러로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대시장으로 랭크됐다.

부문별로는 제약원료 수출이 95년동기의 6.3배인 2180만달러, 완제의약품은 11배 이상인 214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96년 상반기에는 국내 최대 의약품 수출기업인 제일제당이 대규모 수출실적을 올려 보기드문 급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국산 의약품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제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따른 것으로,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의약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성향도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등 일반항생제에서 부터 최근 수요가 많은 세파계항생제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화학저널 1996/9/9.16>